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I. 서 론	III. 도서관경영연구의 성과와 한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경영연구의 학문적 및 실용적 성과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2. 경영연구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3. 선행연구의 개관	
II. 도서관경영연구의 범주와 동향	IV. 요약 및 결론
1. 경영연구의 범주와 대상	
2. 경영연구의 동향과 특징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도서관경영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현정보학분야의 5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1에서 2010까지 발표된 총 2,56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경영논문의 비중은 전체의 21.8%(560편)로 나타났다. 도서관경영분야의 하위영역 중에서 연구성과가 높은 분야는 경영일반, 정책과 제도, 인사관리, 측정과 평가인 반면에 조직 및 예산관리, 건물과 시설, 마케팅과 홍보분야의 연구성과는 매우 미약하였다.

키워드: 도서관경영, 연구동향, 연구성과와 한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ademic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management in Korea and to suggest its outcomes and limitation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a total of 2,567 papers from 2001 to 2010 at the five authorized journal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s a result, library management papers were occupied by about 21.8%(560 papers) of the total paper. The sub categories showed a high performance in library management research were general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human resource manag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However, the organization and budget management, building and facility, marketing and PR were very weak in the research performance.

Keywords: Library Management, Research Trend, Research Performance and Limitation

* 이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전주대학교 2011. 6.2-6.3) 발표논문을 수정·가필한 것임.

** 대구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11년 7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현정보학은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현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여 왔다. 그리고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현정보학을 서지학, 도서관학, 정보학으로 대별하거나 최근에 등장한 기록관리학을 포함시킬 경우에 '도서관'이라는 실체를 가장 중시하는 분야는 도서관학이며, 그 자체로 도서관경영을 지목하더라도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경영분야의 연구자와 그들이 생산하는 학술논문의 경우, 미시적이고 지엽적으로는 개별도서관이나 특정한 관리기능에 한정되지만 거시적 내지 포괄적 측면에서는 모든 관종 및 관리기능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영관리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및 제도적 구조를 연구해야 하고 그들의 개정과 변화에도 민감해야 한다. 그것은 의학에서 임상 연구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처럼 도서관경영에도 현장중심의 조사연구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에 입각한 현실적 적합성과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문현정보학이 도입된 이래로 경영연구의 학문적 성과 및 실용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치열한 성찰이나 체계적인 평가는 거의 없었다. 또한 도서관계도 사례중심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소홀하였고 학술연구의 결과를 수시로 간추려 경영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로 새로운 이론 및 시스템의 소개에 급급한 논문, 서구이론의 추수에 매몰된 식민지형 연구, 과학적 방법론을 이탈한 계량적 연구와 해석, 오류투성이의 변수 선정과 통계처리, 극소수의 조사대상과 자료수집에 기반한 담론과 일반화, 현장 중심성이 배제된 대안, 구습과 관행을 초월하지 못하는 도서관계의 조직문화, 사례분석과 조사연구를 외면하면서도 거침없이 주장하는 사서직의 전문성, 동참 및 소통 부재의 학술대회와 실무자 세미나 등과 같은 비판적 목소리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 도서관경영분야의 최근 10년간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연구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든 경영연구는 도서관 외부의 경영환경과 내부의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이론적 체계화와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학술적 고민이 심화될 때 학문적 및 실용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은 현실이다'는 명제에 충실하려면 도서관경영연구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시계열적으로 비교·해석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 학술지는 문헌정보학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받고 있는 5개 학술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학술지 논문이 학문적 발전추세, 연구자의 관심주제와 연구동향, 도서관계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시계열적 범위는 최근 10년간(2001~2010년)으로 제한하였다. 이미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경영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실용성의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석방법은 경영학의 학문분류 체계, 자료분류표(DDC, KDC)의 요목 이하 배열체계, 대표적인 학술서의 목차구성,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도서관경영연구의 대상과 하위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각 논문의 연구주제, 현장 적용성 여부, 적용대상으로 삼은 관종을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대상에서 문헌정보학분야의 5개 등재학술지 외의 각종 자료(기관지, 기념논문집,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또는 공청회 자료집, 대학논문집, 연구소논문집 등)를 제외하였고, 대상기간도 최근 10년간으로 제한하였으며, 어떤 조사 및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지도 논외로 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도서관경영연구의 최근 동향을 거시적 및 계량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적용성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3. 선행연구의 개관

지금까지 문헌정보학분야에서 학술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 2001년부터 최근 10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총 11편의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

1)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9), pp.55~78. ; 이린주, 임지혜, “한국의 서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서지학회 발간의『書誌學研究』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2. 3), pp.323~344. ;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9), pp.287~309. ;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2003. 9), pp.9~32. ; 유사라, “주요 학술지 주제분석을 통한 정보학 연구동향 비교.”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12), pp.179~197. ; 오세훈, 이두영, “우리나라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167~189. ;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9),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표 1〉 최근 10년간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비교

연도	연구자	대상자료	논문수	대상기간
2001	정진식	국내 학술지 2종(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339	1996~2000
2002	이란주 임지혜	국내 학술지 1종(서지학연구)	51	2000~2001
2002	이명희	국내 학술지 3종(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97	1997~2001
2003	손정표	국내 학술지 7종(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계간서지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각 학과 창립기념논문집+전문 기관지 3종(도협월보,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2,868	1957~2002
2003	유사라	국내 학술지 4종(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국제 학술지 4종(JASIS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D-Lib, Journal of Documentation)	1,312	2000~2003
2005	오세훈 이두영	국내 학술지 1종(정보관리학회지)	302	1984~2004
2005	오세훈	국내 학술지 3종(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기관지 3종(도협월보, 국회도서관보, 도서관)	2,571	1946~2004
2009	장로사 김유승	국내 학술지 5종(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1,555	2000~2008
2009	남태우 이진영	국내 학술지 4종(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99	2000~2008
2009	김규환 남영준	국내 학술지 3종(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74	1987~2007
2010	서은경	국내 학술지 1종(정보관리학회지)	825	1984~2009

이들의 세부영역별 비중은 문헌정보학분야가 4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록학 및 정보학분야로 각각 3편이며, 서지학분야가 1편이다. 도서관경영은 대개 문헌정보학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동향에서 언급되었는데, 주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1년에 정진식이 학술지 2종에 수록된 총 339편의 논문과 각 논문에 인용된 총 8,317편을 분석한 결과, 정보처리, 문헌정보학 일반, 참고정보서비스와 정보시스템, 도서관경영, 자료조작, 정보인식 등의 순으로 많이 인용되었다. 그 중에서 4번째로 인용문헌이 많은 도서관경영(장서개발, 관종별 도서관운영, 대출관리)은 전체의 11.3%(410편)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서개발을 도서관경영에 포함시킨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2년에 이명희가 학술지 3종에 수록된 총 59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디지털도서관, 도서관경영, 정보검색, 웹정보원, 분류목록, 정보서비스, 전문직(교육)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2번째로 많이 연구된 도서관경영(장서개발 미포함)은 전체의

pp.379-408. : 장로사, 김유승,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1호(2009. 3), pp.87-100. : 남태우, 이진영,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451-475. : 김규환, 남영준,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09. 12), pp.217-239. : 서은경, “『정보관리학회지』 연구의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2010. 12), pp.7-32.

8.71%(52편)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에 손정표가 학술지 7종(학과창립 기념논문집 포함)에 수록된 총 2,271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학, 서지학,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공공봉사,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 및 도서관사, 장서개발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그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도서관경영(행정, 법규·기준, 경영이론, 정책·전략론, 계획론, 조직론, 인사관리, 의사결정·전달, 인간관계, 지도성, 작업관리, 예산관리, 장서(서고)관리, 마케팅, 상호협력·도서관망, 자료(부서)별 관리)은 21.8%(495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5년에 오세훈이 학술지 3종과 기관지 3종에 수록된 총 2,571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의 순위는 정보학, 자료조직,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운영, 도서관체제, 참고정보봉사, 기록관리학, 출판, 건물 및 설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4번째 순위인 경영에 해당하는 도서관운영은 전체의 14.8%(381편)였으나, 건물과 설비를 포함시키면 15.2%(391편), 다시 도서관체제를 추가하면 약 30%(719편)가 된다. 그러나 장서개발을 도서관운영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점과 건물과 설비, 도서관체제를 운영과 분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경영분야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학술지의 종수 및 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논문의 8.71~2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서개발의 포함여부에 따라 그 편차가 상당하므로 비율중심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도서관경영 연구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동향을 분석할 때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II. 도서관경영연구의 범주와 동향

1. 경영연구의 범주와 대상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의 하위영역은 도서관학, 정보학, 서지학으로 대별되어 왔으며 최근에 기록관리학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도서관학은 다시 경영관리, 장서개발, 자료조직, 이용자봉사, 보존관리로 세분할 수 있으며,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둘어 장서관리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도서관경영의 범주와 대상을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서관학의 핵심세목인 도서관경영은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치중하는 학문분야인 경영학을 모태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도서관경영의 하위항목도 경영학의 기능적 분류체계를 차용하거나 원용하여 구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성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대 학계가 인정하는 기능적 분류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대다수 하위항목이 일치한다.

〈표 2〉 경영학과 도서관경영의 기능적 분류

구분	경영학	도서관경영
정책과 전략	경영전략	도서관정책, 경영전략
	의사결정론	
조직	조직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인력(구성원)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예산, 회계	재무관리	예산관리
제품	생산관리	장서 및 서비스 개발
건물과 설비	공장관리	건물과 시설관리
판촉	마케팅	홍보와 마케팅
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화, 자동화, 정보화

다음으로 각종 정보자료를 정리할 때 적용하는 분류도구도 학문분류에 기반하여 학문별 구성체계 및 발달과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경영연구의 범주와 대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국내의 대다수 도서관이 표준도구로 채택하고 있는 DDC 및 KDC의 문헌정보학(020) 요목이하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²⁾ 즉, DDC는 021~023, 025(도서관, 문서관, 정보센터의 업무) 아래의 '경영', 026~027에 적용된 '경영관리'가, KDC는 021~023과 026~027에 적용된 '경영관리'가 도서관경영에 해당한다. 양자의 특징적 차이는 DDC가 경영을 025의 세목으로 설정한 반면에 KDC는 강목인 023(경영관리)에 배정한 점이다.

〈표 3〉 자료분류표상 '도서관경영'의 하위항목 구성 비교

강목 분류표	021	022	023	024	025	026	027
DDC (제22판)	도서관 관계성	시설의 계획과 관리	인력관리	-	도서관, 문서관, 정보센터 의 업무	주제별 및 학문분야별 도서관, 문서관, 정보센터	일반 도서관, 문서관, 정보센터
	협력·네트워크 · 촉진	위치와 사이트 : 건 물 : 서고와 배가 : 조명, 냉난방, 공조 · 장비, 가구	전문직 : 기술직 : 관리직 : 직무기술 · 교육훈련관리 : 인력관리 요소	-	경영 : 수서와 장서개발 : 서지분석 · 주제분석과 통 제 : 이용자 · 대출서비스 · 축적 및 이용을 위한 준 비, 장서유지 · 보존		

2)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New York : Forest Press, 2003), pp.49-71.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저, *한국심진분류법*, 제5판(서울 : 동협회, 2009), pp.89-104.

장목 분류표	021	022	023	024	025	026	027
	행정 및 재정	건축 및 설비	경영, 관리		봉사 및 활동	일반 도서관	학교 및 대학도서관
KDC (제5판)	정책 · 행정 : 계획 · 협력 : 법규 · 기준 : 재정 : 특전 · 면제 : 표창	건축계획 : 건축재 료, 건물유지 : 설 계 : 서고와 서가 : 각종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특별실 : 설 비와 비품	조직 : 직원, 사서 직 : 정보화 : 예 산, 결산, 회계 : 조사, 통계, 평가 : 물품관리 : 홍보 이용규정	수서 · 정리 · 보존	자료이용 및 대출 : 정보 서비스 : 이용자 연구 :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 : 기타 서비스 이웃리치 서 비스 활동안내		

마지막으로 도서관경영연구의 범주와 대상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입장은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개론서로 채택되는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³⁾의 목차구성을 살펴보면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발췌한 〈표 4〉를 보면 총 7개 영역(서론, 기획, 조직화, 인적 자원, 지도, 조정, 21세기 관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제7판)의 목차구성

장절 구성		주요 내용
1 서론	1. 현대 도서관 · 정보센터의 관리	관리의 개념, 관리자 역할, 관리자원과 요구되는 기술 등
	2. 관리사상의 진화	경영원리, 인간관계, 양적 · 시스템적 · 상황론적 접근, 학습조직 등
	3. 변화와 혁신과정	변화촉진 요인, 패러다임 전환, 개방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등
2 기획	4. 정보서비스 및 시스템의 계획	기법, 계획의 환경 · 모델 · 과정 · 수준, 정책결정과 개발, 의사결정 등
	5. 전략적 계획과 실행	전략적 계획, 성과계획, 환경평가, 전략적 계획의 단계와 요소
	6. 정보서비스의 마케팅	마케팅과 전략적 요소, 커뮤니케이션과 촉진, 평가 등
3 조직화	7. 조직과 조직문화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도, 공식 및 비공식 조직, 조직문화, 등
	8. 조직의 구조화	전문화, 부서화, 조직유형, 권력과 권한, 집중화와 분산화, 통솔범위, 조직 메카니즘 등
	9. 현재 · 미래의 공식조직 유형	조직의 유형, 위원회, 테스크 포스, 매트릭스조직, 팀제 등
4 인적 자원	10. 도서관 인력관리	인적자원관리의 복잡성, 직원의 종류, 문헌정보학교육과 인적자원 활용 정책, 직무분석과 평가, 선발과 고용 등
	11. 인적자원관리 업무	훈련과 개발, 직무교육, 성과평가, 임금관리, 보상, 연금 등
	12. 기타 인력관리 문제	인력정책, 경력개발, 멘토링, 스트레스 윤리, 성희롱, 노동조합 등
5 지도	13. 동기화	동기부여, 동기이론, 행동수정, 목표설정이론 등
	14. 리더십	관리자와 리더, 21세기 리더십, 리더십의 도전, 리더십 개발 등
	15. 윤리	현대조직의 윤리, 윤리현장, 관리자 윤리행위 촉진지침 등
6 조정	16.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모델과 유형,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등
	17. 참여경영 및 팀제 활용	참여경영, 참여수준, 팀제활용, 팀커뮤니케이션 등
	18. 조직성과의 측정, 평가, 조정	평가, 성과측정, 평가기법, MIS, DDS, OR, 지식관리 등
7 21세기 관리	19. 재정적 책임과 통제	예산계획 및 평가도구, 재원확충, 편성방법, 설명책임과 보고 등
	20. 관리자 : 차세대	현재 조직의 관리, 차세대 관리자, 관리자의 기술과 계속교육 등

3) Robert D. Stueart and Barbara B. Moran,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7th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도서관경영분야에는 경영학의 기능적 분류체계상 주요 관리기능에 해당하는 경영전략, 의사결정론,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등과 자료분류표의 요목 및 세목 중의 협력네트워크, 행정과 정책, 법규·기준, 조사·통계·평가, 시설계획과 건축설비, 그리고 문헌정보학계의 직업윤리, 커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경영을 미시적으로 보면 '부서별 또는 단위별 업무로서의 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자료보존, 건물과 시설, 기타 행정관리 등의 운영적 측면'을 지칭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현대 경영학에 입각하여 전체업무를 위한 계획, 조직, 인사, 예산, 건물 등의 관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게다가 경영사이클의 관점에서는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이 경영관리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 또 한 경영활동의 절대적인 준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경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도서관경영연구의 범주와 대상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 할 수 있다.

- ① 정책과 제도 :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정책, 행정체계, 법령과 기준, 저작권, 지적 자유, 납본 제도 등
- ② 경영일반 : 경영패러다임, 경영요소, 경영전략, 경영계획과 모형, 운영실태와 관종별 경영, 경영기법, 아웃소싱, 위탁관리, 지식관리, 협력시스템, 경쟁력 제고 등
- ③ 조직관리 :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유형, 조직개편, 위원회제도, 팀제, 학습조직, 조직커뮤니케이션 등
- ④ 인사관리 : 채용과 선발, 교육훈련, 정원관리, 직무분석과 평가, 직무만족도, 성과평가, 동기 부여, 사서직제, 자격제도, 전문직, 관장, 리더십, 전문성, 직업윤리, 자원봉사자 등
- ⑤ 예산관리 : 예산배정, 편성방법, 자료구입비, 재원확충, 학술지 가격, 컨소시엄 비용 등
- ⑥ 건물과 시설관리 : 건축계획, 위치선정, 리모델링, 건립의 경제성 분석, BTL 사업, 가구와 설비, 정보기술(IT), 워크스테이션, 서고관리 등
- ⑦ 홍보·마케팅 : 홍보활동, 이용촉진, 시장세분화, 마케팅전략, 고객관리와 만족도 등
- ⑧ 측정과 평가 : 운영평가, 경영평가, 효율성 평가, 시스템 평가 등

2. 경영연구의 동향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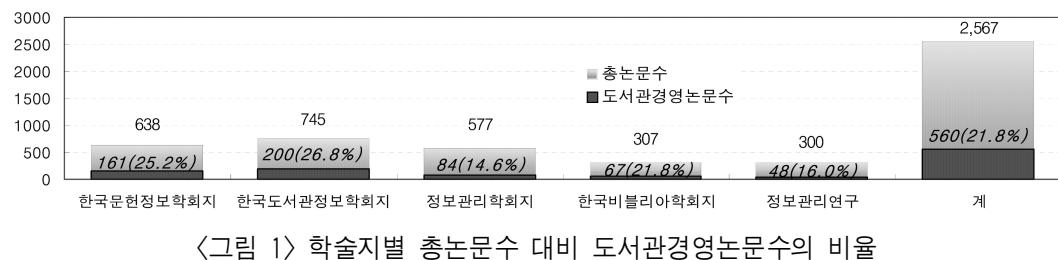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전체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는 일부 존재하지만, 도서관경영분야로 한정하여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최근 10년간(2001~2010)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분야의 5개 학술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을 집계한 <표 5>에 근거하여 학술지별, 연도별, 하위항목별, 성격별, 적용대상별 연구동향과 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술지별 도서관경영분야의 연구동향 분석(20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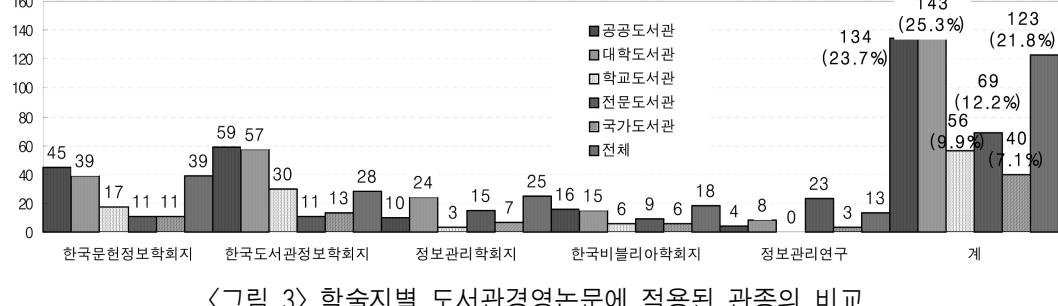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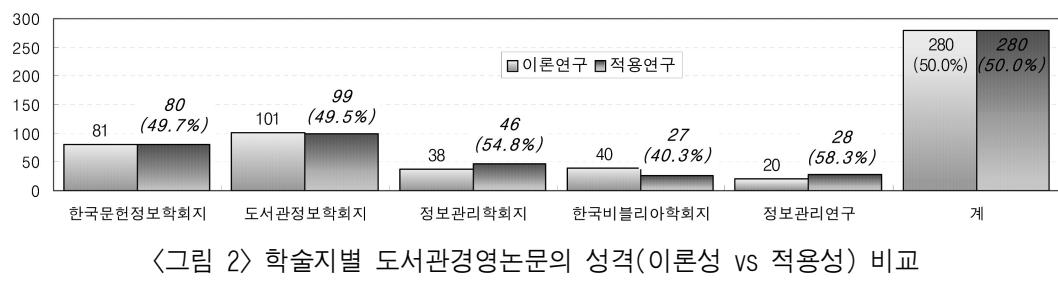
학술지	연도	총논문수	도서관경영분야의 하위항목								논문성격		적용대상						
			정책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물시설	마케팅	측정평가	소계	이론	적용	공공	대학	학교	전문	국가	전체
한국 문화정보 학회지	2001	47	3	3	0	2	0	1	0	2	11	6	5	2	3	1	2	0	3
	2002	59	2	2	1	4	0	1	1	4	15	9	6	6	4	1	1	1	3
	2003	56	4	3	0	2	1	3	0	1	14	10	4	3	3	1	2	1	4
	2004	59	4	6	2	3	0	1	0	3	19	12	7	4	6	1	0	0	8
	2005	59	2	4	1	3	0	1	0	2	13	8	5	3	5	2	0	0	4
	2006	75	4	3	0	0	2	1	0	4	14	2	12	4	6	0	2	2	0
	2007	70	5	3	0	4	1	0	0	5	18	8	10	3	4	4	1	0	6
	2008	78	4	3	0	8	0	2	1	7	25	13	12	8	3	3	2	3	6
	2009	67	3	1	0	4	0	2	0	3	13	5	8	4	2	2	0	2	2
	2010	68	5	3	1	5	0	3	0	2	19	8	11	8	3	2	1	2	3
한국 도서관· 정보 학회지	소계	638	36	31	5	35	4	15	2	33	161	81	80	45	39	17	11	11	39
	2001	63	2	4	2	2	0	0	2	3	15	7	8	3	7	2	0	1	0
	2002	63	8	4	1	3	0	0	0	0	16	11	5	2	3	0	3	0	7
	2003	65	0	6	2	3	0	1	1	1	14	8	6	4	6	2	2	0	1
	2004	77	4	9	2	1	1	1	0	2	20	10	10	7	5	2	1	3	4
	2005	74	2	8	0	3	1	3	2	1	20	10	10	9	5	2	2	0	4
	2006	75	4	11	0	4	0	1	0	3	23	11	12	6	8	5	0	0	3
	2007	89	2	11	2	2	0	2	4	0	23	13	10	4	5	2	2	0	1
	2008	88	7	4	1	9	0	4	1	1	27	13	14	6	9	5	0	4	3
	2009	86	6	4	0	8	0	1	1	1	21	10	11	8	5	5	0	3	4
정보관리 학회지	2010	65	2	5	0	6	0	1	0	7	21	8	13	10	4	5	1	2	1
	소계	745	37	66	10	41	2	14	11	19	200	101	99	59	57	30	11	13	28
	2001	45	1	0	1	0	0	0	0	3	5	3	2	0	3	0	0	0	2
	2002	45	1	3	0	0	0	0	0	3	7	3	4	0	3	0	2	0	2
	2003	60	2	1	0	0	0	1	0	2	6	3	3	1	1	0	2	2	1
	2004	58	2	3	0	1	0	0	1	0	7	3	4	1	3	0	1	0	2
	2005	59	2	2	1	1	0	2	0	3	11	5	6	2	2	0	2	1	4
	2006	61	0	4	0	0	0	0	1	3	8	3	5	1	4	1	2	0	1
	2007	62	5	4	0	0	0	0	1	2	12	5	7	0	4	0	1	1	5
	2008	60	2	2	0	4	0	0	1	1	10	4	6	1	2	2	1	2	2
한국 비블리아 학회지	2009	67	1	2	0	3	0	0	0	2	8	3	5	2	1	0	2	0	2
	2010	60	3	1	0	3	0	1	1	1	10	6	4	2	1	0	2	1	4
	소계	577	19	22	2	12	0	4	5	20	84	38	46	10	24	3	15	7	25
	2001	19	3	0	0	1	0	0	0	0	4	2	2	1	1	0	0	0	2
	2002	27	1	0	0	1	0	0	1	1	4	3	1	2	0	1	0	0	2
	2003	24	6	0	0	0	0	1	0	0	7	5	2	1	2	2	1	0	2
	2004	25	1	0	0	0	0	1	0	2	4	3	1	1	0	0	0	1	1
	2005	25	1	1	0	3	0	0	0	0	5	4	1	1	0	0	1	2	2
	2006	30	1	1	0	2	0	1	0	0	5	3	2	1	2	0	0	0	2
	2007	23	1	0	0	1	0	1	0	0	3	3	0	0	0	1	1	0	1
정보 관리 연구	2008	20	3	0	0	2	0	2	0	2	9	5	4	2	3	0	1	0	3
	2009	61	1	2	0	4	0	4	0	1	12	7	5	3	3	2	2	2	1
	2010	53	2	5	0	2	1	1	1	2	14	5	9	4	4	0	3	1	2
	소계	307	20	9	0	16	1	11	2	8	67	40	27	16	15	6	9	6	18
	2001	26	0	0	0	0	0	0	2	2	2	0	0	0	0	1	0	1	1
	2002	24	3	0	0	0	0	0	0	1	4	2	2	0	0	0	2	0	2
	2003	21	1	2	0	0	0	1	0	1	5	2	3	0	0	0	3	1	2
	2004	22	1	0	0	0	0	0	1	1	3	1	2	0	1	0	2	0	0
	2005	32	3	1	0	1	0	0	0	1	6	4	2	0	0	0	4	1	1
	2006	31	1	2	0	0	0	0	1	0	4	2	2	0	1	0	2	0	2
정보 관련 연구	2007	33	0	1	0	2	0	0	0	0	3	1	2	0	1	0	2	0	0
	2008	41	0	1	0	2	0	0	0	3	6	2	4	0	2	0	3	0	2
	2009	33	0	2	0	1	0	0	0	5	8	1	7	2	2	0	3	0	1
	2010	37	3	1	0	0	0	0	2	1	7	3	4	2	1	0	1	1	2
	소계	300	12	10	0	6	0	1	4	15	48	20	28	4	8	0	23	3	13

가. 학술지별 연구동향 분석

먼저 각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수는 총 2,567편이며, 그 중에서 도서관경영논문의 비율은 <그림 1>과 같이 21.8%(560편)로 나타났다. 이를 학술지별로 분석하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6.8%(200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25.2%(161편)이며, 그 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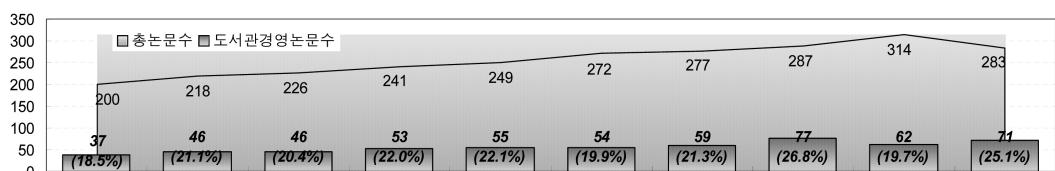
다음으로 도서관경영분야를 연구한 총 560편을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이론논문과 적용논문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반면에 「정보관리학회지」와 「정보관리연구」는 현장에 적용한 비율이 높았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이론적 연구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경영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관종의 비중을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정보관리학회지」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순으로, 「정보관리연구」는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술지의 발간주체, 명칭과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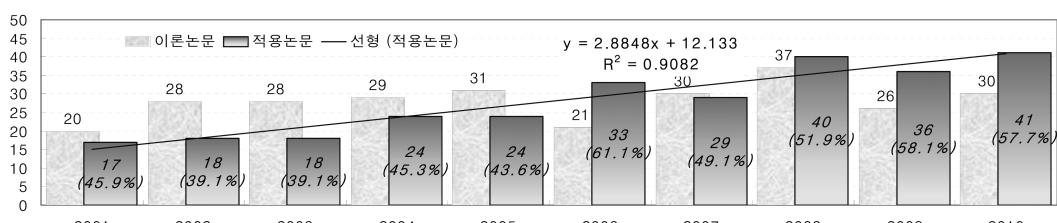
나.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우선, 도서관경영논문의 연도별 총수는 〈그림 4〉와 같이 과거 8년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약간 줄어들었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총논문수 대비 도서관경영논문수는 2001년 18.5%를 시작으로 연도가 경과할수록 증가하다가 2005~2006년에 정체현상을 보인 후 2008년에는 무려 26.8%에 달하였다.



〈그림 4〉 연도별 총논문수 대비 도서관경영논문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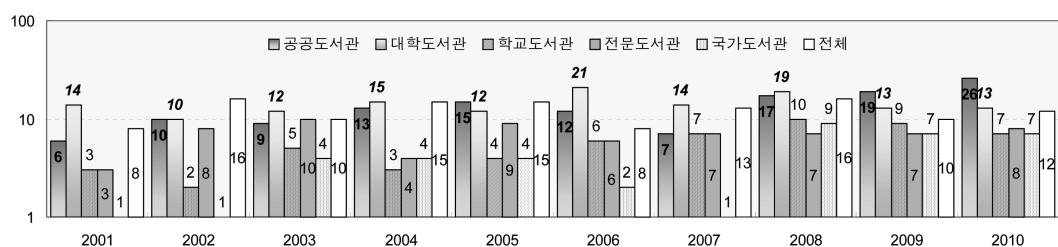
다음으로 도서관경영논문의 연도별 성격은 〈그림 5〉와 같이 과거 5년간(2001~2005) 이론논문이 적용논문보다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2007년을 제외하면 적용논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술연구가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용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5〉 연도별 도서관경영논문의 성격(이론성 vs 적용성) 비교

한편, 도서관경영논문에 적용된 관종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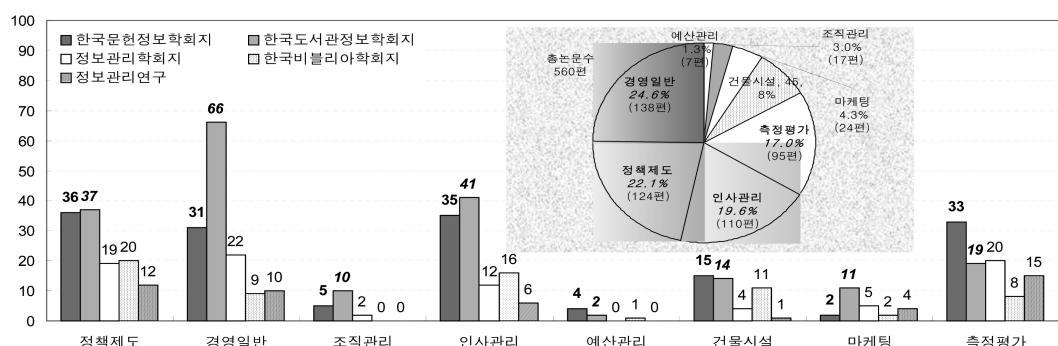
2003~2004, 2006~2007년에는 대학도서관을, 2005, 2009~2010년에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더 많았다.



〈그림 6〉 연도별 도서관경영논문에 적용된 관종의 비교

다. 하위항목별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경영논문의 하위항목별 비율은 〈그림 7〉과 같이 경영일반이 24.6%(138개관)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책제도(22.1%), 인사관리(19.6%), 측정평가(17.0%)의 순이었다. 그러나 건물시설,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들을 학술지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정책제도, 경영일반, 인사관리, 조직관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순으로 많이 게재된 반면에 건물시설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순으로, 측정평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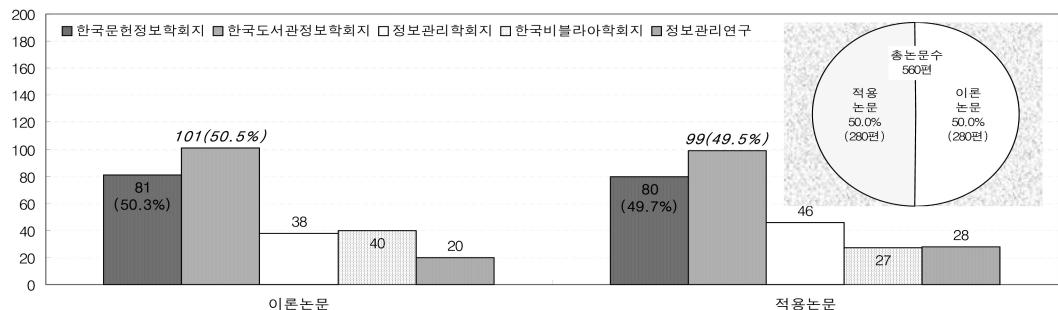


〈그림 7〉 도서관경영논문의 하위항목별 및 학술지별 분포

라. 성격별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경영논문을 성격별로 분석하면 〈그림 8〉처럼 이론논문과 적용논문이 각각 280편으로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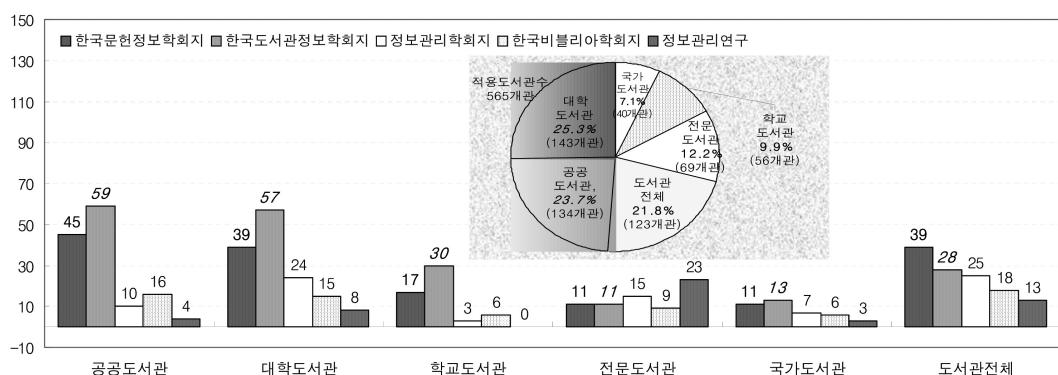
반을 차지하였다. 이를 학술지와 연계하면 양자의 비율이 비슷한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며, 적용논문이 더 많은 학술지는 「정보관리학회지」와 「정보관리연구」인 반면에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이론논문이 더 많았다.



〈그림 8〉 도서관경영논문의 성격별 및 학술지별 분포

마. 적용대상별 연구동향 분석

도서관경영논문이 적용대상으로 삼은 관종은 〈그림 9〉처럼 대학도서관이 25.3%(143개관)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공도서관(23.7%), 도서관전체(21.8%)의 순이었다. 기타는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국가도서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학술지와 연계하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순으로, 대학도서관에 적용한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전문도서관을 연구한 논문은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모든 관종에 적용한 논문이 많이 수록된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도서관경영논문에 적용된 관종의 비중 및 학술지별 분포

III. 도서관경영연구의 성과와 한계

1. 경영연구의 학문적 및 실용적 성과

어떤 학문분야든 연구동향 분석을 전제로 학문적 내지 실용적 성과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학문적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서관경영분야는 과거 10년간 또는 그 이상의 연구동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학술연구는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 이론적 정립과 해석, 논리적 타당성 확보 등을 강조하므로 도서관계에 적용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현장의 인지노력과 수용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실용적 성과를 기대하거나 재단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에서 드러난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영연구의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연구대상의 확장과 다양한 접근성을 들 수 있다. 하위항목별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과 제도는 경영일반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 시책, 방침과 지침, 발전방안, 전략적 계획, 법제, 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그 대상도 과거보다 크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나 토pic을 정책적 및 제도적 연구의 테마로 삼았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타당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정책, 웹 기록물 관리정책, 인터넷 음란물 이용정책, 오픈액세스 정책, 국가도서관 체계, 각국의 도서관행정 및 법제, 도서관 및 관련법령, 관종별 기준, 저작권과 권리제한, 납본제도, 공공대출권' 등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경영일반에 관한 연구는 신경영기법과 협력시스템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확보와 이론적 토대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실용적 성과가 있었다. 과거 많은 도서관경영연구는 경영학에서 차용한 인사, 조직, 예산 등의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서구사회의 선진이론을 소개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은 도서관 내부의 현안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서관 및 사서직 중심의 내발적 동인보다 외생적 요인인 패러다임의 변화, 지방자치시대, 신공공경영론(New Public Management)의 도입, 연계성 및 효율성의 강조 등이 도서관 경영활동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외부환경과 접목시킨 경영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주제로는 '지방분권과 도서관의 관계, 도서관 경영형태의 변용, 아웃소싱과 위탁경영,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적용, 벤치마킹 기법의 활용, SWOT 분석과 전략적 계획, 작은도서관의 효과적 운영방안, 도서관 협력체계(공공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도서관과 출판계, 도서관과 박물관 등) 구축, 다문화 및 장애

인서비스 협력망 운영, 국가통합도서관 협력체제 개발, 도서관 경쟁력 제고방안, 하이브리드도서관 모형개발, 지식관리의 접목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공공도서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아웃소싱과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셋째, 조직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연구성과는 미미하였다. 전자의 경우,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운사이징 차원의 조직적 통합, 팀제조직의 도입, 주제별 조직화, 정보기술과 조직문화 등을 연구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기타 관종을 대상으로 조직의 진단과 개편, 조직문화의 분석, 조직환경의 연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자도 도서관 확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복권 기금의 활용,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 재정지원 방안, 대학도서관 기금조성, 전자저널 라이선스 가격 등에 대한 극소수의 연구가 존재할 따름이다.

넷째, 경영관리의 요체에 해당하는 인사관리는 인력의 양성 및 수급문제, 자격제도, 직무분석, 계속교육,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국내·외 전문사서 수요분석 연구, 지방자치와 사서직 공무원의 연수, 주제별 및 봉사집단별 전문사서의 양성, 아동서비스·공공도서관·주제전문사서 등을 위한 직무분석,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사서직과 전문직, 사서직제 연구, 사서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사서교사 문제,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 대학사서의 교수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건물 및 시설관리는 건립계획과 방안, 타당성 조사, 공간계획, 보존서고 설립, 신정보기술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리적 근거와 실용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도서관건축의 발전과정,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신도시 건설과 도서관 건립, 국립분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건립계획,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 건립방안, BTL 방식에 의한 도서관 건립, 공동보존서고 구축, 도서관 건립·운영을 위한 컨설팅시스템 구축, 도서관건축디자인을 위한 패턴언어 구축, 이용자 행태에 따른 공간구성, 도서관 설비 및 편의증진시설 기준, 디지털자료실의 분석과 규모별 모형,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및 RFID 도입, 재난대비 실태와 대응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마케팅 및 홍보활동은 여전히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전자의 성과는 '도서관 마케팅 경영전략, 인터넷 마케팅을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 등'에 불과하였고, 후자도 '홍보, 도서관친구,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개방, 대학도서관 외부이용자제도 개선, 특별이용자제도, 고객관계관리의 도입 등'에 관한 극소수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일곱째, 측정과 평가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도서관경영연구는 1951년에 Deming⁴⁾이 제시한 경영사이클인 PDCA(Plan-Do-Check-Act) 가운데 계획 및 평가기능 보다 실행부문에 치중하였고 학계도 업무수행 중심의 연구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종을 불문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존재가치를 모체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성이 강조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따라 관

4)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PDCA>> [cited 2011. 4. 25].

종별, 업무(서비스)별, 기법별로 다양한 도구를 적용하여 효율성, 경제적 가치, 사회적 영향,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거나 계량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대표하는 연구주제로는 '도서관 경영평가의 동향과 지향성, 사회자본과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경영품질, 도서관 및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 도서관 및 학술정보유통기관의 평가·성과·향유지표 개발, 서비스 품질과 효과, BSC(Balanced ScoreCard) ·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 Clustering DEA/AHP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평가, 서비스 품질의 평가 및 제고를 위한 LibQualTM과 ISO 9000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경영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성과는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과 지식정보 취약(소외) 계층의 문제를 경영관리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그 외연을 크게 확장한 점이다. 전자를 대표하는 사례는 '라이브러리 2.0, 공공정보의 인터넷 필터링, 정보공동체(Information Commons)의 도입과 활용, 디지털 도서관의 정보보안, 웹DB 및 전자잡지의 라이선스 전략, 도서관 가상참고서가의 협동구축, 셀프 아카이빙과 기관 레포지터리,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 유비쿼터스 도서관' 등이다. 후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장서 및 서비스정책, 정보격차 해소방안, 도서관 불안요인 측정, 저작권법의 면책조항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2. 경영연구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세간에 '경영은 현실이다'는 경구가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도서관경영은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층이 수행하는 관리적 기능을 충칭하는 개념으로서 경영이 관리를 포괄하는, 소위 경영우위설이 정설로 간주되고 있지만 양자를 염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경영연구는 외부의 경영환경과 내부의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거나 현실적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동향을 분석하면 경영연구의 양면성, 즉 빛과 그림자를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상술한 학문적 및 실용적 성과인 반면에 후자는 후술할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의 도서관경영연구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한계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평가, 지역 단위 또는 개별도서관 중심의 미시적 정책수립 지원, 도서관 법제 및 기준의 개정안 제시 등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 도서관계의 협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년간 (2009~2010)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는 2008년에 확정·공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을 점검·평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지방화,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관 등을 건립·운영하려면 이론적, 정책적, 시스템적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그 외에 2006년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통합법이었으나, 2008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미 '대학도서관진흥법안'과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므로 그 성격과 체계를 통합법에서 기본법으로 바꾸어야 하며, 도서관의 법적 및 권리기준도 각각 1988년과 2003년 아래로 개정되지 않아 법리적 정당성, 논리적 타당성, 현실적 적합성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되지 않고 있다.

둘째, 경영일반에서는 서구 선진이론의 무비판적 수용, 반복적 내지 중첩성 연구, 밀착형 분석연구의 부족, 대책없는 자기주장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무비판적 수용을 대표하는 연구주제로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들 수 있는데, '지식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경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한계는 지식경영에서의 지식은 암묵지와 명시지 중에서 전자에 방점을 둔 기법임을 망각하고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정보관리, 장서관리와 혼돈하는 사례도 있다. 다음으로 최근에 여러 논문이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를 다루었으나 초기에 발표된 논문의 논거와 쟁점사항 그리고 해법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중첩성이 강하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의 평생 학습 지상주의와 자유열람실 운영문제는 한국적 특수성을 대표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밀착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도서관의 공공도서관기능 수행 또는 야간 지역사회 개방은 지역주민용 장서개발과 전문사서의 배치문제를 외면한 채 주무부처의 정책추진에 편승하여 대책없이 동조하거나 주장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조직 및 예산관리에 관한 연구의 한계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이론적 및 대안적 실적이 축적되지 못하는데 있다. 조직관리의 경우, 장서개발 및 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바람직한 모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텁제조직을 제외하면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의 학습조직화는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천적 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론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예산관리도 재원확충 방안, 자료구입비의 합리적 배정기준,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지출비율, 웹DB 및 패키지형 전자잡지의 라이선스 비용문제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나 연구실적은 미미하다.

넷째, 다수의 인사관리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주제가 전문직 관장제인데, 5급 이하의 공공도서관장직에 비서직원을 보임하는 관행은 「도서관법」 제30조 제1항을 사문화시키는 대표하는 사안이므로 조례분석과 현황파악을 전제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사서직원을 대학도서관장직에 보임하거나 교수지위를 부여하려면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당위성을 논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빌어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제전문사서제도의 경우도 국내 공공도서관의 실정을 감안하면 이용계층별 전

문가인 아동사서, 장애인 전담사서, 다문화가정 담당사서 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전문지식 중심의 전담사서제 도입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건물과 시설관리를 다룬 연구는 건축계획, 건립의 경제성 분석, 위치선정, 리모델링, 서고관리 등을 대상으로 거시적 접근과 개별관 중심의 현상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2009년부터 「도서관발전종합계획」⁵⁾에 따라 매년 50개관 이상의 공공도서관과 70개관内外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많은 대학도서관이 한계수장을 도달하여 별동증축이나 공동보존센터를 고민해야 하므로 건축계획에서 공간구성 및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분석과 치열한 논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무하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게다가 건축규모 및 특수계층을 고려한 공간구성의 표준모형 연구와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가구 및 워크스테이션의 인간공학적 설계와 배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령 국내 성인남녀(19~24세) 평균 신장이 1989년에는 각각 169.9cm와 157.9cm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각각 174.1cm와 161.5cm로 향상되었으므로⁶⁾ 테이블과 의자, 워크스테이션 가구 등을 인간공학적으로 연구하여 최적 배치에 기여할 때 학술연구의 유용성과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여섯째, 마케팅과 홍보활동은 시장세분화, 고객관리 및 만족도, 불안척도, 불평행동요인 등을 분석하여 도서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 연구가 소수 있었으나 원론적 접근에 머물고 있다. 기업체의 이윤극대화 전략에 기반한 마케팅을 비영리조직에 적용하려면 양자의 조직문화적 특성, 핵심요소인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전략, 시장세분화 등에서의 상대적 차이를 해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4P를 SWOT 분석하고 세분화한 이용자집단과 연계하여 서비스의 마케팅 내지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도서관의 일차적인 목적은 수집된 장서와 서비스,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지만, 이용자는 독서, 학습활동, 연구조사, 정보검색,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므로 각각에 대한 욕구와 중요성을 파악하여 이용자집단을 세분화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일곱째, 측정과 평가는 최근의 도서관경영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배경과 실용적 기법이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및 적용모형의 일반화에 실패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용어의 혼란인데 여러 논문에서 분석, 측정, 평가, 성과, 편익, 가치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측정지표, 평가지표, 성과지표, 향유지표가 혼용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BSC 기반의 성과지표 개발과 DEA를 이용한 효율성 평가의 경우, 각각을 여러 관종에 적용하였다면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현장에서 경영성과나 효율

5)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09~2013(서울 : 동위원회, 2008), pp.53-54.

6)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2009 국민체력 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pp.107-108.

성을 평가하기 위한 논거와 표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외에도 도서관이 모체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존재이유를 설명하려면 사회문화적 편익가치와 경제적 이용가치를 측정하는 거시적 연구기법과 평가모형이 축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입-산출 중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미시적 연구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투자효과, 비용편익분석, 가상평가법, 사회적 투자효과 등을 각각 적용·비교하고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학술적 소통 및 역할분담의 부족도 경영연구의 성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는 새로운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고 체계화하는 동시에 현장에 적용하여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반면에 현장은 학계의 연구결과를 학습 및 응용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현장이 학술적 연구결과에 무관심하고 경험과 관행을 중시한다고 비판하며, 현장은 학계가 실용성과 현실성을 무시한 연구결과를 양산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전가와 대립적 구도가 지속되는 한 경영연구의 한계는 극복되기 어렵다. 학계는 현장 밀착형 경영연구에 진력하고 현장은 학계의 모든 연구결과를 숙지하고 선별적 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공동연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적용 내지 변용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분야의 5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도서관경영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경영논문은 총 2,567편 중에서 약 21.8%(560편)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학술지별 비중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많았다.

둘째, 연도별로는 최근에 가까울수록 도서관경영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 논문보다 적용논문이 더 많아지고 특히 공공도서관에 적용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하위항목별로는 경영일반(24.6%), 정책제도(22.1%), 인사관리(19.6%), 측정평가(17.0%)의 순으로 많은 반면에 건물시설,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는 매우 적었다. 정책제도, 경영일반, 인사 관리, 조직관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순으로, 건물시설은 「한국문 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순으로, 측정평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넷째, 성격별로는 이론논문과 적용논문이 각각 절반이며, 양자의 비율이 비슷한 학술지는 「한국문현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이고, 적용논문은 「정보관리학회지」와 「정보관리연구」에, 이론논문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더 많이 수록되었다.

다섯째, 적용대상별로는 대학도서관(25.3%), 공공도서관(23.7%)의 순으로 많은 가운데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적용한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현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순으로, 대학도서관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전문도서관은 「정보관리연구」,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많았다.

여섯째, 도서관경영연구는 특히 정책제도, 경영일반, 건축시설, 측정과 평가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디지털 정보유통과 취약계층 문제를 경영관리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외연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러나 조직 및 예산관리, 마케팅 및 홍보에서의 성과는 매우 미약하였다.

일곱째, 최근 10년간 도서관경영연구는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수준별 도서관정책의 평가, 미시적 정책수립 지원, 법제기준의 개정안 제시 등에 대한 연구의 부재를, 경영일반에서 선진이론의 무비판적 수용, 다수의 반복적 내지 중첩성 연구, 밀착형 분석연구의 부족, 대책없는 자기주장 등을, 조직예산에서 이론적 및 대안적 실적의 미축적을, 인사관리에서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의 미확보를, 건물시설에서 거시적 접근과 현상적 분석을, 마케팅과 홍보에서 관념적 및 원론적 접근을, 측정평가에서 논거 및 적용모형의 일반화 실패를, 그리고 학계와 현장의 학술적 소통 및 역할분담의 부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모든 경영활동은 이론보다 현장을 중시한다. 마찬가지로 경영연구는 외부의 경영환경과 내부의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더 비중을 두는 학술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의 도서관경영연구도 이론적 및 현실적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집중될 때 학문적 및 실용적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